

추석을 맞아 오늘까지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17절).

많은 재물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그 안에 위험이 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다 보면 권력과 명예 등 자기를 높이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신8:12-14). 또한 소유로 모든 것을 판단하다 보니 더 많은 부를 쫓아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재물은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불확실한 것이고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후회 주사 누리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18절).

18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엡2:8-10).

'나눠주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눠주면서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누가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것은 공감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는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웃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19절).

재물만 추구하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는 사람들(6:9)과 반대로 선한 일을 베푸는 사람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영원한 저축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참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생명의 원천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 딤전 6:17-19 -

추석 가정예배 순서

인 도 : 맡은이

목 도	다같이	성 경	딤전 6:17-19	인도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100:4-5)	17.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회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신양고백	다같이				
찬 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다같이			
	1.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 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인도자	
기 도	가족중	기 도		인도자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흩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추석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말씀으로 바르게 살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늘 넘치게 하옵소서. 힘들 때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자리를 하나님의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다같이	
			1.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2.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3.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4.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후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기도문		다같이	